

국토교통부장관 賞

친환경 제설제 개발 환경 보호 앞장

(주)제마코퍼레이션



정영환 대표이사

(주)제마코퍼레이션(대표이사 정영환)이 '제8회 2013대한민국 건설환경 기술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지난 2005년 법인을 설립한 제마코퍼레이션은 응집제 등 건축자재분야 연구와 기술개발에 전념해온 업체로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제 9090호 등을 획득했으며, 기존보유 기술의 강점을 살리면서 새로운 독자기술 정립에 주력해 온 모범업체다.
특히 대표자재 환경배려형 친환경 제설제 'GREEN SR-100'을 개발해 콘크리트포장, 구조물, 교량 등 내구성

2011년부터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기준이 환경부 고시로 마련돼 기존 염화물 제설제보다 제설효과가 높고 가격 면에서도 경제적인 제품이라 인정받았다.
또한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GREEN SR-100'은 도로변 수목고사 및 농작물 피해경감, 토양의 사막화 방지효과를 내고 편리한 작업성 및 보관 저장성(포장상태로 1~2년 보장이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다.
지금도 기존 염화물 제설제 대체품인 제품을 개발해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 진부C-대관령1터널 시험구간 등에서 각종 비교시험을 통해 꾸준한

실제만을 구매·공급기로 한 가운데 각 지자체가 친환경 제설제 사용시 국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 계약 'GREEN SR-100'... 새로운 독자기술 효과 '탁월'

유지에 기여하고 제설작업 후 염화칼슘과 같은 슬러지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방지 및 2차 지하수 오염방지구과(염소 함유량 50%이하, 물분율분 1% 이하)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염화물 제설제(소금, 염화칼슘) 사용에 따른 식생물 성장저해 및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환경보호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서 개발한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제마코퍼레이션은 지난 2006년부터 친환경 제설제를 준비해 본선에 처음 적용했다 이후 각종 비교시험을 통한 꾸준한 제품개발과 공급을 해 왔으며,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시험결과를 통해서도 'GREEN SR-100'은 소금, 염화칼슘에 비해 고형화 현상이 없고 제설작업 후 슬러지(찌꺼기)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역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8년 조달청 납품계약 체결 등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도로교통사업소,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부산시설관리공단, 서울대학교, 서울대공원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돼오고 있다.
최근 조달청이 올해부터 친환경 제

이에 새누리당 황영철(충천·횡성) 의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제마코퍼레이션의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마코퍼레이션 정영환 대표이사는 "염화칼슘, 소금 등 염화물 사용증가에 따른 도로파손은 물론 환경피해대책 시급해 개발을 시작했다"고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개발 배경을 밝히며 "일반 염화칼슘에 비해 지속성이 매우 우수해 앞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국내 유일 수공구조물 전문기업 기술력 자랑

지티건설산업(주)



박인진 대표이사

세굴방호공 기법으로 업계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지티건설산업(주)(대표이사 박인진)이 '제8회 2013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티건설산업은 상하수도설비공사, 포장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시행하는 기업으로 하천·항만·교량·수공구조물 관련 특허기술인 세굴방호공 기법과 사면보강 발판공을 시공하고 있다.
특히 30여년간 노하우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SPF공법은 재래식 세굴보

존 해의 시장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기술 공법 개발에 주력해 안심하고 적용할 수 있는 뛰어난 제품 및 공법을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의 각오를 밝혔다.
또한 지티건설산업은 최근 4대강 교량 보수 보강, 제방·해안선 보호, 수공구조물·하상·저수로 보호 등에 자사의 기술력을 적용시켰으며, 하천 및 질서도 사면 보호를 위한 친환경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4대강 살리기 횡단교량보강(남강교) ▲삼계~구문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중 고교교 세굴방호공 ▲낙

원, 굴포천 금강 양지제, 태백시 황연동 자연재해 복구 사업에 적용된 바 있다.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이

'세굴방호공 공법' 개발 등 친환경 기술개발 주력

호공에 대한 단점과 문제점을 개선해 좀 더 안전하고 항구적이며, 능률적인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이 공법은 현장에 맞게 변형·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하천에 설치된 교량, 교각, 교대 주변이나 보 등의 수공구조물 보호공, 보수보강공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티건설산업은 4대강 건설과 관련, 주요 현장에 자사의 기술력을 적용하면서 주목받고 있고, 리비아, 베트남 등 해외 현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박인진 대표이사는 "앞으로 국내는

동강 살리기 45-2공구 금호대교 세굴방호공 ▲경부고속도로 병천2교 세굴방호공 ▲국도 34호선 원종교 교량 세굴방호공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교량 세굴방호공 ▲부산진항 연결잔교 부두 파일 세굴방호공 등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하천이나 항만, 교량 등 수공구조물 설치 시 친환경적이면서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을 선보이고 있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티건설산업은 최근 친환경 사면보강 발판공도 선보였다. 이는 문산 동문천 하천생태기능 보

공법은 토목섬유를 이용한 섬유대공을 격자망의 방블 형태로 제작하고, 하부를 비탈면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콘크리트 사용을 줄여 경제성을 높이고 내부에 식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박 대표이사는 "물의 흐름에 따라 수공구조물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공법을 개발했다"면서 "현장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기술을 개발해 매년 1~2개 이상의 신공법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술력 바탕 新 건설문화 신화 창조 주역

예지종합건설(주)



장영기 회장

재건축 및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 기업 예지종합건설(주)(회장 장영기)이 '제8회 2013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예지종합건설은 이번 시상식에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재건축·재개발 전문 건설사로 다시금 이름을 알리 입지를 굳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계속되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대형건설사들도 국내 수주 목표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예지종합건설은 오히려 선전하며 사업을 활

략해 업계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거품이 많은 광고·홍보 보다는 10년, 20년 후의 결과로 평가 받겠다는 예지종합건설의 경영철학은 이러한 장 회장의 일에 대한 욕심과 고집에서 비롯됐다.
제6대 양천구의회 의원 및 현 양천구청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 회장은 직접 설계까지 도맡아 하고, 불합리하고 소모적인 건축 관련 규제를 색출해 해파하는 등 내실 있는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설계, 관련법 등 건축에 관한 모든 것에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자부

를 쌓아왔다.
저울 도독질을 하면 삼대가 땅한다'는 옛말에 근거, 장 회장은 최고의 자재만을 고집하며 원가를 절감하기

특화기술 50년 이상 내구성 '자랑'... 땅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

발하게 진행 중이다.
예지종합건설 장영기 회장은 "내수 시장의 30%가량을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 국내 경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예지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은 자사의 발전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 사회적으로도 선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기존의 블록 단위로 이뤄지던 재건축 방식이 아닌 낙후된 지역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공사 시행으로 틈새시장을 공

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땅과 지역의 특색을 살피 허용 오차를 해결하는 등 노하우를 쌓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 시절에는 건축공사 '사전예고제' 등 불필요한 민원과 이웃간 마찰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제도를 폐지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예지종합건설은 장 회장을 필두로 한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최초 공사부터 여자에 이르는 공사를 진행하기까지 변함없이 '예지'라는 이름으로 입주자들 및 지역주민들의 신뢰

위한 어떠한 '꼼수'도 철저히 배척해 온 것이다.
또한 '분양가보장제도'를 도입해 투자자에게 안전 장치를 마련해주고 입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의 소지를 막아 인지도를 끌어 올리기도 했다.
한편 국회의원 정동영 특보로 활동하며 정치계에도 인연이 있는 그는 제6대 양천구의회 의원, 양천구청 건축심의위원, 서울경찰청 시민경찰, 양천소방대 의용소방대장, 한국합기도협회 양천구 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와의 대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친환경 바탕 100년 건설가치 실현 선도한다

한양개발(주)



정하연 대표이사

한양개발(주)(대표이사 정하연)이 '제8회 2013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양개발은 학교법인 한양학원(한양대학교)의 재단 산하 기관으로 건축사업, 토목사업, 주택사업, 분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962년 1월 17일 창립 이래 '친환경, 최고의 품질, 성실시공과 확고한 기술력'을 슬로건으로 한양대학교, 한양여자대학, 한양대학교의료원, 한양증권, 프리저던트호텔, FED(Far East District) 공사 등 다

구축하고, 철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생활화로 무결점, 무재해 달성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 준수하고 있다.
또한 ISO 9001:2008 획득 등 품질기술력에서도 인증 받았고, 국내 건설현장은 물론 해외 건설현장 무재해를 통해 건설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성실시공과 안전관리, 안정적 경영 등에서 모범적인 업체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구 하고 있다.
한양개발 정하연 대표이사는 "향상 현장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당

무엇보다 그동안 한양대학교 재단이 발주한 건물 등을 시공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규모도시형 생활주택개발부터 시작한 주택사업

학교법인 산하 '사랑 실천' 강조... 성실기업 모토 실천

방면의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하면서 종합건설로서의 면모와 자긍심을 가지고 반세기를 이룩어온 성실한 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
지난해 전국 토목건축 3,561개사 중 시공능력평가액 318위, 전국 전기안전공사 1만3,425개사 중 1,397위에 선정되는 등 매년 우수한 실적을 기록 중이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수년 내 상위 5% 진입을 이룬다는 목표로 사업에 매진 중이다.
특히 한양개발은 학교, 병원, 각종 플랜트 분야 등 전문적인 시스템

당하게 맞서며, 적극적이고 강력한 추진력 속에 인간중심 경영을 지향했기에 오늘날까지 한양개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자부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양개발은 지난해 황학동 한양 아이클래스, 한양대 연구동 신축공사, 강서초등학교 공영 이용시설증축공사, 성내천 물놀이장 경관개선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시공 실적을 남기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건설업을 이끄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

은 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이사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High-Quality, High-Speed, Low-Cost, Low-Fault'를 사명감으로 삼아 질적, 시간적, 금전적, 완벽을 목표로 선진미래추구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계획 정신으로 전진할 것을 약속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한다"며 수상소감을 피력했다.